

# 동아시아사와 한국사(동아시아 중세사와 고려사)

허 홍 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 목 차 -

### 머리말

1. 세계사의 아르케와 새로운 패러다임--탈레스와 노담, 강물과 사막(물과 불)
2. 동아시아 고대문명과 위기--중국과 중원, 찬미의 강물과 재앙의 홍수 황하, 중원과 변방.  
황하의 제언과 준설, 만리장성 축조, 대운하의 굴착
3. 중세 문화중심의 이동과 고려--- 양자강유역과 고려, 대리와 대하
4. 화이사상에 갇힌 근세조선과 일본의 약진---명과 청, 일본  
맺음말-- 세계사의 이해를 위한 열린 한국사 동아시아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사

## 머리말

탈레스 Thales (BC 624?~BC 546)는 성공한 장사꾼(무역업)이었다.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므로 견문이 넓고 상황판단이 빠르고 정확하였다.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피라미드 높이를 알아내었고 일식을 계산하여 예고하였다고 전한다. 그는 밀레토스학파의 창시자였고, 현대에 이르러 철학과 수학의 시조로 평가되었다

탈레스는 사물의 아르케(Arche:본질이나 기원)를 물이라 했다. 강물이 풍부한 곳은 물산이 넉넉하고 생성과 창조가 있다고 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 반대쪽의 동아시아에서 국가도서관을 담당하였던 老聃 (老子, BC 6세기)역시 천문에 밝았고, 그도 역시 물이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라고 탈레스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물이야 말로 숲의 원천이고 이를 경작하면 인구와 가축이 늘었으며, 도시를 이루어 인구가 집중되면서 문명이 꽃을 피웠다.

동아시아는 노담을 관념화 신비화시키고 도교의 시조로 삼았지만, 서유럽은 탈레스를 학문의 시조로 理性化시켰다. 동아시아와 서구는 탈레스와 노담에서 보듯이 출발은 같았으나 이들의 계승자에 이르러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아시아는 이념과 통치가 강하고, 학문이 약화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신비화와 관념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sup>1)</sup>

2007년 말 한국의 대선에서 강물의 중요성을 내걸고 멋진 대결을 펼쳤다. 입후보자가 한강과 낙동강을 관통하는 대운하를 내걸자, 당황한 상대는 한강과 임진강의 하류에서 관통하는 소운하로 맞섰다. 한강의 방향과 반대로 흐르는 실개천인 청계천의 변화를 보았지만 남한의 최대강인 한강과 낙동강의 상류에서 굴을 파고 연결하는 대운하의 제안에 얼떨떨하였다. 투표자는 소운하보다 대운하에 손을 들어주었고, 대통령은 결정되었다. 탈레스와 노담의 지혜를 꿰뚫은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야말로 21세기 위대한 시대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강물은 세계사의 아르케이다. 생명의 강물과 대비되는 파괴의 사막은 세계사의 새로운 서술을 위한 패러다임에 등장할만한 대상이다. 나일 강의 이집트문명,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문명은 사하라사막과 아라비아사막의 확장으로 일찍이 위기를 만났고, 사막이 없는 이웃 반도인 그리스와 로마가 이를 계승하였다.

고대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 시작되고 숲을 보존하면 계속되었고, 이를 파괴하면 사막이 확장하면서 파멸하였다. 미국은 미시시피 강의 지류를 막아 캘리포니아의 사막화를 줄였고 세계의 일등국가로 등장하였다. 늙은 유럽은 라인 강과 도나우 강을 보존하여 사막화를 막고 지난 세기 세계를 주름잡던 기반을 지탱하였다. 강물의 확보와 숲의 보호를 동아시아사와 고려사를 바라보는 아르케로 삼고, 이에 역행하는 사막의 확장을 문명을 파괴시키는 요소로 삼고자 한다.<sup>2)</sup>

## 1. 세계사의 아르케와 새로운 패러다임

아시아와 유럽은 육지로 길게 연결된 가장 큰 대륙이다. 넓이와 인구로 보면 유럽은 아시아의 서쪽에 연장된 일부이다. 동북 아프리카와도 좁으나마 육지로 이어졌고, 홍해와 지중해는 대서양이나 태평양과는 전혀 다른 호수에 불과하다. 아시아는 메소포타미아문명, 인더스와 갠지스 강 문명, 황하문명 등 삼대문명의 발상지이고 지금도 삼대 문화권의 뿌리를 이룬다.

아시아는 면적과 인구라는 두 가지 조건 뿐 아니라, 문명의 기원과 문화권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세 개의 대륙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일 강과 메소포타미아의 고대문명이 위기를 맞으면서, 서쪽 이웃인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가 주도권을 이어 받아 늦게 고대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리스문명의 형성에 지혜를 보냈던 탈레스는 이집트(BC 3200-Bc 323)와 메소포타미아가 사막의 확장으로 위협을 받자 문명의 쇠퇴를 예감하고 물의 중요

---

1) 위인이 서거하자 백학의 무리가 그의 동상 위를 날며 슬퍼하였다. 2세 장군님이 관문점을 방문하자 남측의 저격을 염려한 하늘은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도록 안개로 감쌌지만 초소의 군인 앞에 다가서자 셋듯이 걷히고 찬란한 햇빛이 '웅장한 모습'을 비쳤다. 3세 정운대장의 업적은 최근에 바쁘게 나타났다. 클린턴이 태평양을 건너와 장군님께 사죄하도록 만들고, 월드컵 본선 진출하도록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뒷받침하였다.

2) UNCCD(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활동과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CCD)에 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언문 참조.

성을 제안하였다.

탈레스가 활동한 같은 시기 노담은 강물과 어울린 수풀을 여성으로 비유하였다. 강물은 동아시아에서도 창조와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었지만, 황토를 머금고 우기에 밀려드는 홍수는 파괴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건기에 황하의 바닥을 파내고 독을 쌓지 않으면 우기에 문명을 삼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시대가 지날수록 사막은 확대되고 황하의 재앙도 이에 따라 증가하였다. 노담이 세상을 떠나고 몇 세기 지난 다음의 황하는 서북으로 사막이 확대되어 건기와 우기에는 황사와 홍수가 번갈아 생명과 창조를 앗아가는 애물단지로 변하였다.

고대문명의 성장, 개화, 결실, 쇠퇴의 일생은 사막과 관련이 있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환경파괴의 현상이 일어나 숲이 사라지고 물과 토양이 오염되어 사막화가 불가피하고 문명의 쇠퇴를 예고하였다. 사하라 사막이 확대되자 이집트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가 중류 유역에서 사막을 피하여 점차 바다에 가까운 하류로 이동하였고, 바다에 연결된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이르러 끝났다. 다음 문명의 위기는 이집트와 가까운 메소포타미아문명에 닥쳤고, 아라비아사막의 확대와 관계가 깊었다.

거대한 페르시아제국은 사막의 확장으로 생태가 변하자 생계를 위협당한 여러 민족이 이주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전제정치가 불가피하였다. 페르시아 통치의 경직성(專制政治-권력집중)<sup>3)</sup>은 환경과 밀접하고 물과 숲이 보존된 반도에서 도시국가의 연맹단계에 불과하였던 그리스에 패배하였다. 사막은 만물의 창조를 멈추게 하고, 인간의 심성을 사납게 바꾸면서 전쟁을 유발시켰다. 그리스 남부의 소도시들이 대도시로 성장하자 반도의 물과 숲이 고갈되고, 이보다 물과 숲이 잘 보존된 이웃의 마케도니아와 로마에게 차례로 주도권을 넘겼다. 물과 숲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던 탈레스는 세계사의 변화를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세계문명을 동시에 흔들었던 사건은 중앙아시아에서 사막의 등장이었다. 사막의 확장은 지형과 기후를 포함한 자연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경작과 방목으로 숲이 제거되고, 전쟁에서 火攻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생존이 극한에 도달한 민족의 이동이 한번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파급하였다.

세계문명의 초기에도 코카서스일대에서 한 갈래는 그리스의 원주민 펠라스기인을 남부로 축출하면서 소아시아로 이동하였고, 다른 한 갈래는 인도대륙의 서북으로부터 진입하여 드라비다인을 남쪽으로 구축하였다. 동아시아에서도 상고시대부터 岐連山脈 북쪽 배사면에서 황하상류의 좁은 회랑을 통하여 여러 차례 민족이 진입하였다. 소수의 周族은 다수의 殷族을 황하의 하류로 구축하고 봉건제도를 실시하였다.

역사시대에도 4세기 중앙아시아의 사막화를 견디지 못한 흉노의 한 갈래인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게르만족을 압박하고, 이들이 연쇄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동로마를

3) despotic government; autocracy라 불리며, 이와 반대의 개념은 삼권분립(separation; segregation) 이나 대통령 임기제 등이라 하겠다.

멸망시키고 중세를 열었다. 동으로 이동한 흉노는 여러 민족을 압박하여 황하의 한쪽을 남쪽으로 이동시켜 남북조시대가 전개하였고, 황하유역은 여러 민족의 각축장으로 변하였다. 황하 웨수이분지에서 이룩하였던 고대문명의 발전과 보존은 이무렵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사막이 확장될수록 북서계절풍과 황하가 운반한 황토는 문명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였다.

## 2. 동아시아 고대문명과 위기

아시아는 거대하고 여러 개의 대륙으로 구성되었다고 불릴 만하며, 중앙아시아의 사막화를 되돌릴 국제적인 협력은 없었고 최근에만 시도되었다.<sup>4)</sup> 이곳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자주 清野戰術로 火攻을 이용하여 숲과 초원을 불사르면서 강물과 오아시스가 말랐고, 중앙아시아의 사막화는 시대가 지날수록 가속화하였다.

동아시아의 중앙에 오늘날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1911년 또는 1949년 이후에 정식 국호로 쓰였다. 이보다 앞서 변방의 주민이나 주위에 있던 민족과 국가가 중원인 황하유역을 확보한 나라, 또는 중원에 둔 패자의 도시, 또는 천자의 수도라는 정도의 의미로 일찍부터 사용하였다. 서유럽에서는 瓷器(China), 또는 이를 생산하는 곳이란 동의어로 썼다. 동유럽에서는 카세이(Khitai; 영어로 Cathay)이라고도 불렀고, 어느 곳에서도 중국(Central State)라 하지 않았다.

서북아시아의 말라버린 토양이 사막의 폭풍을 타고 이동하였고, 이를 운반하는 황하는 쉬지 않고 지반이 높아졌다. 건기에 강바닥을 파내고 독을 쌓기에 소홀하면 天井川을 이루고 우기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문화유산을 삼켰다. 황하를 준설하기 위하여 동원한 노동력과 장비는 대규모였고, 이를 지휘하는 관리자는 무기를 보유한 힘센 무장이었다. 무장은 노동력의 지휘와 훈련도 가능하였다.

노동력을 군사로 전환시킨 무장은 장군으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이들이 결투를 거쳐 覇者는 天子로 등극하였다.<sup>5)</sup> 황토를 머금은 황하는 노담이 말한 숲과 조화된 여성의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강물이 아니었고, 중원의 숲은 고대문명의 말기에 사라졌다. 고대말의 황하는 범람하여 대지를 삼키는 힘센 괴물로 변하였고, 이를 군사력으로 제압하면 황제를 의미하였다. 황제는 실제로 황토를 상징한 황색 바탕에 중앙과 사방을 장악한 다섯 개 발톱(五爪)의 용을 그린 冕服을 입었다.<sup>6)</sup> 물과 같은 여성의 부드러운 속성과 이를 먹고 자라난 숲은 민속과 철학에 숨어두고, 사나워진 흉수와 퇴적한 황토는 황색의 국토와 변화

4) 물의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은 동아시아의 전국시대의 踐土之盟에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사막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은 없었다. 1994년 6월 17일 파리회의, 아프리카의 제안으로 1996년 1회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제정

『左傳』 僖公 二十九年.

5) Karl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Yale University Press, 1957

6) 聶崇文, 『新定三禮圖』, 清華大學出版社, 2006.

무쌍한 용으로 국가종교에 흡수되었다,

민족이동은 사막이 불려온 또 다른 재앙이었고, 이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의 축조 역시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하였다. 사막으로 고갈된 물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남방의 물산을 운반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이에 대운하를 필요로 하였고, 이를 굴착하기 위한 다수의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황하의 준설과 만리장성의 축조, 대운하 굴착의 원인은 모두 사막의 확장에서 비롯된 황하유역의 생존을 위한 대응이었고 동원된 노동력은 패자의 기반이 되었었다. 이들 삼대 노동력은 동아시아의 고대말기부터 중세에 가장 빈번하였다. 최근에 중원을 석권했던 마오쩌둥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공언했듯이 패자는 군사력을 장악하고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의 패자는 사막이 근접한 공포의 황하유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 수도를 두기도 불가능하였다. 방대한 노동력의 동원은 다음으로 군사력으로 전환되었고, 군사력이 지켜주지 않으면 왕조가 망하고 이주한 민족의 장군이 새로운 왕조의 천자로 등장하였다. 노동력의 군사화와 이를 조련한 무장의 연합과 결투는 천자로 군림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조공과 책봉의 封貢體制는 패자가 결정된 다음에 위계질서를 대외로 확대하고 인정하는 수순이었다.

양자강은 황하보다 길고 유역이 넓고 여유롭지만, 동아시아 패자가 등장하는 중원에서 벗겨나 있었다. 중원이라 불리는 황하유역은 태풍처럼 단명하더라도 강력한 패권을 가진 여러 왕조를 생산하였고 사막을 피하여 몰려든 수많은 민족이 참여하였다. 춘추전국과 남북조, 그리고 오대로부터 원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황하를 차지한 여러 민족은 주인을 바꾸면서 각축하였다. 중원을 차지한 민족은 여러 차례 변했어도 중세의 왕조는 문화를 창조할 겨를이 없이 고대왕조가 창조한 문물을 그대로 둘러싼 집게(hermit crab, paguridae)와 같았다.

중원은 황하유역에 수도를 두었던 국가의 중심부를 의미하였다. 중원의 국가는 다른 지역 보다 자주 바뀌었지만, 다른 곳에 수도를 옮기기도 불가능하였다. 국가는 무력이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원에 동원된 노동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방대한 무력을 확보할 필요가 적었고, 황하유역의 군사력을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중원에서 유지된 단명한 왕조와는 달리 상고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중원에서 먼 곳일수록 안정되고 오랜 기간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였다. 중원을 확보한 국가는 군사력과 영역은 방대하였지만 왕조를 지속한 기간과는 무관하였다.

중원의 패권이 빈번할수록 문물제도란 집게의 고등껍질은 이와 반대로 내용의 생명체만 바뀌고 연속성이 강하였다. 사막의 확대와 군사력의 규모는 비례하고, 왕조의 안정과 지속성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당의 중반기부터 사막의 확대가 심하여 동서육로인 천산남로가 폐쇄되고 말기에는 북로마저 폐쇄되었다. 중원의 국가는 너무 자주 변하여 시대구분 하기가 이보다 떨어진 한반도나 일본열도보다 훨씬 복잡하였다.

중원의 시대구분이 복잡한 원인은 단명한 국가와 복잡한 지배민족의 교체, 그리고 집

계의 연속이 3구분법이나 5구분법을 방해하였다. 근대를 가장 올려서 송으로 잡은 京都學派가 있지만,<sup>7)</sup> 오대부터 금까지는 분열의 시기라 보면 근대는 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한국사의 근대는 실학이나 개항부터 기점으로 잡지만, 일본사는 고대국가, 중세막부, 근대를 개항과 明治維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중원의 시대구분에서 상고는 황하의 상류에서 하류로 확장하는 殷(BC1650-BC 1070)과 周(BC 1070-의 왕조교체. 그 사이에 山戎의 침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고대는 전국시대부터 진한을 거쳐 삼국시대까지를 설정할 수 있다. 五胡의 이동은 중세의 시작이고, 몽고족의 이동은 중세의 종말과 관련이 있다.

고대란 문화권의 형성과 세계종교의 배태기이고, 중세는 중아시아에서 사막의 확대에 따른 흉노족의 이동, 그리고 세계종교의 확산, 근대는 세계화의 준비하는 시기란 관점이 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화에 가장 먼저 근접한 국가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를 확보하고 지중해와 인도양을 장악하고 동남아시아를 이슬람화한 이슬람 제국이다. 이들은 사막에서 기원하여 정복과 교역, 그리고 종교를 이용한 해상제국의 성격이 컸다. 다음으로 몽고제국은 같은 사막에서 출발하였으나 동아시아와 이슬람제국을 제압하고 동유럽까지 석권하였다. 몽고는 정복과 교통과 통신의 역참을 장악하였고 문화의 창조보다 기존 문화의 소통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몽고 즉 원이 서유럽으로 확산시킨 동아시아의 도자기와 비단생산, 군사무기인 화약, 지식의 보급수단인 활자기술, 그리고 이슬람의 증개로 동아시아부터 전수한 항해술이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활용한 서유럽의 약진은 원에 이어 시계추의 중심에 서서 동서로 공간을 확장하면서 세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대륙까지 확대하였다. 이스파니아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 아메리카로 이어진 세계화의 공간을 넓히고, 동서의 해로로 소통시켰던 이슬람제국의 기반을 장악하였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육로를 통한 세계의 소통은 서유럽의 영향이기보다 몽고를 통하여 기반을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겠다.<sup>8)</sup> 동아시아에 기반을 두었던 몽고제국의 원은 세계화에 기여한 점에서 동아시아를 근대에 접근시켰다는 확신을 준다.

### 3. 중세 동아시아 문화중심의 이동과 고려

세계의 중세사는 중앙아시아에서 확대된 사막화와 깊은 관련이 깊었다. 이곳 흉노족의 한 갈래인 훈족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의 동북을 유린하면서 게르만족을 남으로 이동시켰고, 서양의 고대를 종식시켰다. 또 다른 한 갈래는 동으로 이동하여 남북조시대(306-581)를 열었다. 중원보다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의 동북과 서남은 오랜 기간 국가를 유지하였다. 동북의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과 고려, 서남의 南詔(649-902)와 大理

7) 前田直典 『東아시아에서의 ‘古代’의 종말』 中國史 時代區分論』 창작과비평, 1984, pp.49-67

8) Halperin, Chales, J 『Russia and the Golden Hord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739-1253)는 오랜 기간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였다. 唐(618-906)은 중기부터 육로로 외부와의 통로였던 천산남로를 포기하고 천산북로로 바꾸었을 정도로 사막화가 심각하였다.<sup>9)</sup>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북서계절풍과 황하로 운반한 황토는 고대 말기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불렀다. 중세의 황하유역을 장악한 다수의 민족은 패자를 번갈아 갈아치우면서 단명한 왕조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고려와 같은 시기에 중원을 장악한 遼와 金과 元은 가장 강력한 패자였다. 근대 이후는 漢族이나 서북에서 진입한 민족보다 북방과 동북방의 민족이 주도한 원과 청이 주도한 시대로 변화하였다.

오늘날 중국은 동북의 만주족인 後金이 세웠던 淸의 공간을 빌린 집계이고, 서구의 문명과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宋과 明은 華夷를 외쳤지만 국력은 요와 원과 청에 비교하기 어려운 열등한 국가였다. 混族인 다수의 漢族과 純族의 소수민족이 세운 국가의 교체에서 국가의 통치비용과 국력은 민족 구성원의 수효와 반비례하였다.<sup>10)</sup> 중원의 근대를 열었던 몽고족의 원은 고려와 티베트, 그리고 위구르족을 연합하여 국가를 경영한 통치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서를 합친 세계사를 쓰면서 동아시아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황하에서 토해내는 황토를 머금은 황색바다가 끝나고, 바닷물이 푸른빛을 찾고 숲이 옥어진 靑丘라 불리는 동북에 삼국이 위치하였다. 고구려는 요하와 맞닿아 700년간 국가를 유지하였고, 漢으로부터 남북조와 수당에 이르는 수많은 중원 왕조의 변화에도 중원과 북방민족의 문화를 융합하고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시키면서 백제와 신라의 성장에 울타리가 되었다.

한국사의 시대구분에서 고대의 종말과 중세의 기점은 앞으로 논의될 중요한 과제이다. 중세의 기점을 삼국의 후반기부터 삼거나, 후기신라부터 또는 고려시대부터 중세로 잡기도 한다.<sup>11)</sup> 고려의 기원은 반도의 서북에서 등장한 고구려의 후예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동아시아의 중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황하유역인 경우 사막의 확장과 민족의 이동으로 보면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4세기부터, 13세기까지이다. 이 무렵 사막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세계종교인 불교가 자생종교인 유교와 도교를 압도하였다. 유럽에서도 가톨릭이 신화종교를 대치하였으나 중세말기에는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과 토착종교의 결합이 강하였다.

동아시아의 중세는 사막의 확장으로 육로가 막히고 水路인 運河와 海路의 의존도가 높아가던 시대였다. 이 무렵 지중해를 장악하고 동진한 아랍인들은 동남아시아까지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동아시아와 교역하였다. 신라말기에는 아랍인이 궁정의 숙위로 활동하였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이다.<sup>12)</sup>

9) 나가사와 가즈도시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이재성역 민족사, 1991)

10) 동아시아의 국가로는 元과 淸이 가장 영토가 넓었고, 이들은 북방과 동북방의 소수민족으로서 주도적인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원과 청은 통치비용을 최소화하여 인구증가가 가장 컸고, 그만큼 통치비용이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11) 한국사시대구분론 불교의 공인된 4세기후반, 신라의 반도통일과 발해의 건국, 고려의 건국

고려를 세운 왕건의 先代는 해로로 국제무역을 수행한 신라의 서북방 출신이었다. 멀리 동아시아의 동남과 교역하면서 대식국이라 불리던 아랍인과도 만났다. 이보다 앞서 이집트와 페니키아로부터 해상활동을 획득한 그리스와 로마가 게르만의 남진으로 몰락하자, 아랍인은 지중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게르만족의 확대를 봉쇄하였다.<sup>13)</sup> 이어서 아랍인은 인도양을 석권하고 동아시아로 진출하였다. 고려는 앞선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자칭하면서 최초로 통일국가를 완성하였다.

한국을 호칭하는 국제어 코리아(Korea)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랍인은 동아시아의 동남인 오늘날의 광둥성(廣東省)의 광저우(廣州)와 푸젠성(福建省)의 첸주(泉州)까지 교역거점을 마련하였다. 泉州語로 高麗<sup>14)</sup>는 코리이고 대식국인은 이를 유럽에 전하였다. 중세 유럽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국가이름은 여성명사이고 아(a)가 추가되어 Corea가 되었고, 후에 영어의 기원인 게르만어로는 Korea로 썼다.<sup>15)</sup>

동아시아의 고대문명은 중세에 이르면 중원에서 발달은 고사하고 계승조차 어려웠다. 중세에 동아시아의 사막화와 민족이동으로 문화의 중심이 양자강과 동북지역으로 중심지가 이동하였고, 수와 당이 건국하여 다시 수습하였다. 이들 왕조는 패권과 운하의 굴착, 그리고 문명의 확대는 있으나 殷과 周나 漢보다 새로운 창조성이 큰 문명은 적었다. 사막은 민족을 이동시켜 문명의 확산과 전파는 촉진시켰지만 잦은 전쟁과 사회의 불안으로 문명의 보존과 창조는 장애가 되었다.

반도에 위치한 고려(918-1392)는 중세에 황하유역의 중원과는 달리 오랜 기간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였다.<sup>16)</sup> 고려는 당(618-906)이 망한 다음 오대(907-960)와 송(960-1274)과 거란(916-1125), 그리고 금(1115-1234)과 원(1206-1274)의 통일을 지나 명(1368-1644)이 건국한 다음까지도 한동안 국가를 유지하였고 지배층의 연속성이 견고하였다. 고려는 동아시아에서 이룩한 고대의 문화유산을 중세에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개방성이 강하였다.

고려는 고구려와 달리 출발부터 육로보다 해로를 통하여 외부세계와 접촉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남중국과의 오월과의 교류는 송으로 이어진 해로의 문화적 연결을 지속하였다. 고려의 자기와 서적출판, 불교회화 등 중원문화이기보다 양자강유역과의 문화적 교류에 의하여 성취된 해양문화였다. 여기에 신라의 수학과의 의학, 문학, 지리학 등을 계승하였다.

12) 신라 패룡의 석상, 처용설화의 기원설도 있다.

13) Pirenne, Henri; Frank D. Halsey (translator) (1969). *Medieval cities: their origins and the revival of trad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4) 푸젠 성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麗는 명사나 지명에서는 려가 아니라 리로 발음한다.

15) 지금도 라틴어에 뿌리를 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는 한국의 표기에서 K가 아니라 C로 시작한다.

16) 지금까지 한국의 중세사는 일본인이 확립한 동아시아 관점에 의하여 고려는 외침으로 풍전등화와 같았다는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고려는 당시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자주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면서 개방성이 강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에 대해서 필자의 다음 두 권의 책에서 정리하였다.



북송에서 고려에 희귀본의 존재여부를 묻고 128종의 서명을 적어 보냈던 일이 있었다.<sup>17)</sup> 또한 유교의 중요한 경전으로도 尙書와 孟자의 古本이 고려에 있었고 북송에서 이를 토대로 유교를 강화시킨 국가종교인 성리학의 확립에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기술 교육인 잡학과 과거제도에서 明算學과 名算業(수학), 醫學과 醫業, 地理學과 地理業에 등장한 서적은 고대말에 없었다고 보았으나<sup>18)</sup> 고려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주목할 대상이다. 중원에서 성취한 고대의 과학기술서로 의학이나 지리학, 수학에 관련된 고전을 고려가 보존하고 활용하였다.<sup>19)</sup>

불교전적은 당의 말기 會昌廢佛(844)과 개국 초인 五代를 거쳐 송초에 이르는 시기에 중원의 많은 교학에 관한 불교전적이 사라졌으나 고려에서는 보존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토대로 대각국사 의천은 더욱 수집하여 敎學 章疏의 총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간행하고 대장경의 교정과 결집을 추진하였다. 선종서적으로도 『祖堂集』이나 『重添足本禪院清規』가 보존되었고, 이를 토대로 『宗門圓相集』, 『禪門拈頌』 등의 저술이 가능하였다. 일본의 『육조단경』이나 『법집별행록』, 『직지심체요절』 등도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보충한 저술이 탄생하였다.

몽산과 지공의 저술은 고려가 풍부하게 전하고 현재까지도 불교에 크게 영향을 주고 일부가 지금도 보존된 사례로서 주목된다.<sup>20)</sup> 특히 원말의 法典이 현재에도 발견되고, 원대의 書畫가 조선에서 다수가 보존되어 명의 사신이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sup>21)</sup> 송은 고려가 보존한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을 역수입하려고 노력하였고, 고려는 서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은 개방성을 유지하였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거리가 있는 천문학과 지변을 인제와 연결시킨 『天地瑞祥志』는 고려에서 고대 동아시아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한 뚜렷한 증거이다.<sup>22)</sup>

당의 말기와 오대와 십국의 사라진 詩文을 보존하고 유지하였음이 『十抄詩』로도 확인되었다.<sup>23)</sup> 임유정이 저술한 『百家衣集』은 고려가 보존한 동아시아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들 집구의 작가를 분석한 결과 600인 이상의 시인이 등장하고, 이 가운데 3할 정도의 작가와 작품은 현전하지 않았다. 이로 보면 고려가 동아시아 중세의 문화유산을

17) 金庠基 ‘宋代에 있어서 高麗本의 流通에 對하여’ 「李相殷博士華甲紀念論叢」 1965: 「東方史論叢」 (1974) 再收錄.

屈萬里, ‘元祐六年宋朝向高麗訪求佚書的問題’ 「東洋學」 5, 1975.

18) J. Needham et,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vol. 3-33.

19) 許興植 「高麗 禮部試의 諸業別 出題와 及第者의 進出」 『高麗科學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20)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一潮閣, 1997.

許興植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창비, 2008.

21) 申叔舟 『保閑齋集卷』 권 14, 畫記.

22) 권덕영, 「天地瑞祥志의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일본에 전래된 신라 天文地理書의 일례 - 」, 『白山學報』 52, 1999.

김일권, 「고려시대의 새로운 천문서 天地瑞祥志 - 」,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주원, 2008.

23) 扈承喜 「十抄詩 一考」 『書誌學報』 15, 書誌學會, 1995.

보존하고 활용한 증거로서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하겠다.

#### 4. 화이사상에 갇힌 근세조선과 일본의 약진

동아시아의 사상사에서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는 고등종교일 뿐 아니라 이념이었다. 유교와 도교는 중원을 대표하는 여러 민족이 세운 국가가 오랜 기간 답습한 대표적 사상이고, 동시에 국가종교였다. 유교와 도교는 동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중원의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확장하면서 주변의 국가를 종속적으로 흡입시키는 한계를 가진 국가종교였으며, 세계종교가 아니었다. 동아시아에서 기원한 종교의 바탕인 신화종교는 국가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계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론의 체계가 약하다. 중국의 유교와 도교와 일본의 신도는 토착성과 국가종교의 요소는 강하지만 이론적인 체계가 약하여 국가를 벗어나 세계종교로 확대하기는 어려웠다.

유교와 도교와는 달리 불교는 남아시아 인도에서 기원하여 지구상의 가장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였다. 불교는 기원지에서 적어도 동아시아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침략을 동반하지도 않았으므로 초기의 기독교와 상통한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국가종교가 아니듯이 불교는 지금 인도의 국가종교도 아니다. 불교의 교주는 물론 많은 고승이 우리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원은 동아시아의 선진문명을 대륙의 서쪽 끝으로 이전시켰을 뿐 아니라 기병으로 아랍에 타격을 줌으로서, 이베리아반도까지 석권했던 이들을 격퇴하고 서구가 약진할 해상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였다.<sup>24)</sup> 송에서 기원한 성리학이란 순족의 약진으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화이사상으로 극복하려는 이념이었다. 성리학은 원대의 과거제도에서 채택되었으나 화이사상을 배제한 천자의 정당성을 왕도정치로 윤색한 패권을 위한 정치사상이었다. 명에서 성리학은 화이사상을 강조하였으나 만주족이 세운 청은 이를 배제하고 고증학만을 인정하였다.

조선은 송명의 화이사상에 매몰되어 원이 고려와 혼인동맹을 맺고 토번과 색목인(위구르족)을 연합하여 소수민족의 연합을 통한 세계의 경영을 부정하였다. 화이사상이란 성리학을 국가종교로 삼아 중원의 패권주의에 스스로 종속시키는 세계관이었다.<sup>25)</sup> 청의 번영은 명을 능가하였지만 원이 도달하였던 세계사에 미달되었다. 조선의 실학은 청이 억제한 화이사상의 영향으로 사고의 영역이 다소 넓어졌으나 세계사의 대세에 편입한 열린 세계관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은 명보다 원에 가까운 속성이 있었다. 청의 군사조직인 팔기의 하나가 몽고족으

24) 사라센이 송으로부터 확보한 항해술과 동로마로부터 확보한 그리스의 고전문화는 문예부흥과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이성을 회복하여 과학사상을 발전시키고 근대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이베리아반도를 확보하면서 이탈리아반도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룩한 서유럽 도약의 계기들 마련하였다.

25) 허홍식 「고려시대에서 주력할 새로운 세기의 과제」 『東方傳統文化와 現代化』, 中國 延邊大學 民族研究院, 2002.

로 구성되었을 정도였고, 원의 영토에 근접하려는 방향에서 중앙아시아로 영역을 넓혔으나 러시아의 동진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명보다 향상되었으나 원보다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로를 통한 열린 세계를 주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랍을 제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돌아 확산을 대응하지 못하였다.

원대 이래 대운하보다 황해를 이용하는 내해 수로의 이용이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원은 육지의 교통과 통신은 역참을 이용하여 세계화를 성취하였으나 해로를 통한 성취는 이슬람제국보다 열세였다. 명의 해로의 활용은 송보다 향상되었지만 이슬람제국에 비하여 뒤졌다. 청은 송명보다 원과 상통하였으나, 그 범위를 따르지 못하였고, 러시아의 팽창은 원의 서북에서 오랜 기간 존속한 칸국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조선과 명에 도전하였던 일본은 대륙에 대한 야망을 해상으로 관심을 돌리고, 폐쇄된 아시아로부터 탈출하여 세계사의 대세에 합류하는 선진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맺 음 말

한국중세사와 동양사를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강하였지만 돌이켜보면 내용은 참으로 부족하였다. 동양사란 아시아나 동아시아의 전부가 아니고, 황하유역에 화이사상을 강조한 당송명을 중심으로 엮어 만든 강의록이었다. 차라리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의 역사라고 정의하였으면 정직하였다고 하겠다. 이름만 동양사이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북아시아사를 완전히 빼놓고, 황하유역에서 패권을 둘러싼 각축전을 벌였던 국가에서 화이사상을 강조한 몇몇 국가를 강조한 동북아시아의 극히 일부분이었다.

고려과거제도사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하나의 가설을 만들었다. 동북아시아의 문명은 고대에서 창조성이 거의 끝나고, 중세부터 반복된 문명의 틀을 둘러쓰려는 집계의 각축전이고 문화의 보존과 문명의 창조성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이론이었다. 당의 말기부터 동아시아문명의 중심축이 양자강유역과 고려로 옮겨갔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새로운 동아시아사를 쓰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는 일본이 동아시아를 대표한 세계의 주자로 등장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저술에 담긴 이론으로는 참으로 궁색하였다.

고려는 중세의 해로를 이용한 세계사에 가장 앞선 개방된 지역의 하나였다. 고려는 양자강 유역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패권의 중심인 증원보다 더 많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였다. 조선이 건국되고 외부세계는 화이사상에 안주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쇄되었고, 이후의 역사에서 공간에 대한 안목이 크게 위축되었다. 세계종교인 불교를 버리고 화이사상을 강조한 국가종교인 성리학에 매몰되면서 공간관은 위축되었다. 지난 세기 후반 학문을 시작할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와 폐쇄된 환경에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중세사의 전공자로서 부족하나마 서구와 동아시아를 넓게 접하고 그곳에서 학문의 시야를 넓히려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심하였다.

고려사에서 원과의 관계는 우리의 과거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었

다. 고려는 오랜 기간 원의 전신인 몽고와 협력과 갈등관계였으나 원과 혼인동맹을 통하여 국가를 유지하면서 세계의 경영에 동참하였고 창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고려의 문물과 제도는 원의 세계경영에서 크나큰 도움이 되고 빛을 발휘하였다. 과거제도는 고려가 원에 제안하여 실시한 문물제도 가운데 하나였다. 사경과 불교회화, 도자기는 원의 궁중에서 환영을 받고 무역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고려의 제작자를 초빙하여 제작할 정도였다.

고려는 명이 원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건국한 후에도 북원과 교류하면서 한동안 국가를 유지하였으나, 조선건국 후에는 폐쇄정책으로 돌아갔다. 이후의 서유럽은 원이 제압하여 기세가 꺾였던 아랍을 깨트리고 지리상 발견의 시대를 이루면서 동아시아의 곳곳까지 등장하였다. 이들로부터 무기 제작과 전술을 도입한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 7년의 시련을 받았다.

일본이 170년 후에 다시 등장한 다음에 조선은 이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문물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구 반대편의 여러 국가와 교류하면서 군사력은 물론 선진 문물을 습득하여 지원군을 삼았으므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였다. 대륙에서 해로로 관심을 돌리고 숲의 보존은 근대문명의 아르케이며, 동아시아 근대에 일본이 부상한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동아시아의 고대문명은 황하 중류인 중원에서 꽃을 피었으나 서북의 사막화와 중원의 파괴로 고대문명은 중세에 문화와 산업 중심은 황하유역을 벗어났다. 중세 동아시아문명의 중심은 중원에서 벗어나 양자강 유역으로 이동하였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반도의 남부를 통일하면서 양자강유역과 교류하여 동아시아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중원은 사막이 가까이까지 확대하여 점차 수도를 황하하류로 옮기고 군사력을 가진 패자의 봉공체제를 가까스로 유지하였다.

동아시아 고대문화의 발상지였던 중원은 사막화로 중세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패권 이상의 문명의 창조성을 상실하였다. 동아시아의 중세는 중원을 벗어나 양자강이나 고려로 문화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또한 운하보다는 해로를 이용한 세계화의 요소도 서유럽보다도 활발하였다. 원은 동아시아 문명을 반대쪽의 대륙으로 확산시키고 아랍의 해상권에 타격을 주면서 서구가 발돋움할 기반을 열었다. 고려는 해로에 의한 개방성이 강하고 창조성을 발휘하였으나 조선은 성리학에 의존하여 폐쇄성이 기회를 틈타서 사막과 거리가 멀고 서구의 문명을 접촉한 일본이 약진하는 대세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 발표논문의 창조성은 출간된 저자의 저술과 논문을 종합하여 확대한 결과이다. 저자와 상의 없는 논지의 사용을 엄금한다. (2009,9,19)